

담양 대덕면 운산마을 '참 삶 공동체'

두레·품앗이 되살려 행복마을 만들어가요



담양군 대덕면 운산마을 주민들이 지난 17일 마을회관에서 사물놀이와 함께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정을 자축하고 있다. /담양=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만덕산과 수양산에 둘러싸인 산골 오지인 담양군 대덕면 운산마을. 쇠락해가는 전형적인 산촌이었던 이 마을에 아연 활기가 돌고 있다. 2년여 전부터 주민들 스스로 추진해 온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하나 둘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 공동체(회장 윤영민·46)를 구성한 뒤 '행복마을 만들기 30년 비전' 전략을 세웠다. 벼농사 이외에 다양한 수익원을 찾아 풍요롭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로 만들자는 데 뜻을 한 데 모은 것이다.

한 사업비에 보태기 위해 1천여 만원의 썬치돈을 내놓았고 울력도 마다하지 않는 등 주민 모두가 행복한 운산마을 만들기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30년 마을 비전 수립

지난 17일 오후 대덕면 운산마을 회관. 여느 농촌마을처럼 한적함과 정겨움이 가득 배어났다. 하지만 자신감과 희망에 부른 주민들의 표정만큼은 사뭇 달랐다.

주민들은 그동안 △1사1촌 텃밭 분양 △타나무·대나무 등 마을 특산물 만들기 △폐교를 활용한 농촌체험 △예절·한글교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노하우를 익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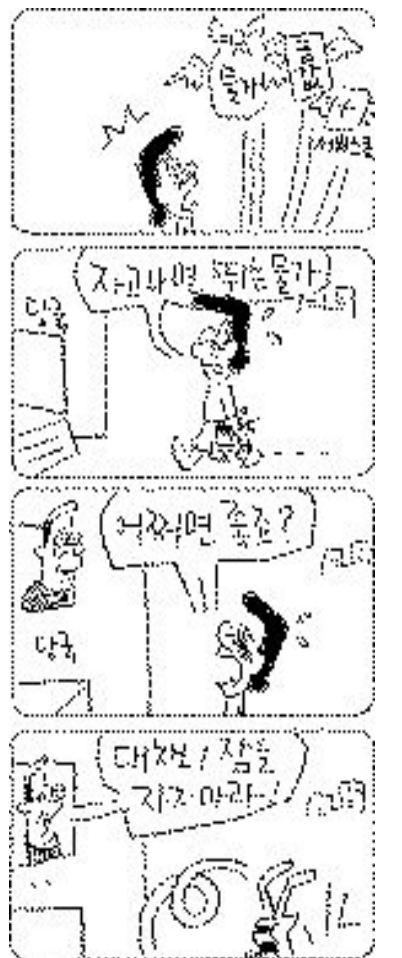
최근 이 같은 노력의 결실이 서서히 빛을 보고 있다. 운산마을은 올해 농림부 선정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지정돼 2년 동안 2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또 구립 28일 광주·전남 지역혁신협의회가 주관한 '제3회 광주·전남혁신대회'에서는 '혁신대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결실을 맺기까지 어려움도 적지 않았다. 우선 주민들의 뿌리 깊은 폐배의식을 떨쳐내야 했다. 이를 위해 윤 회장은 "마을 내 갈등의 종재·조정 및 해결은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맡는다" '주민 상호 간 돈거래보다 품앗이로 두레 문화를 살린다'라는 내용의 향약을 만들었다.

일등을 넘보는 위치까지 올랐다. '노력하면 된다'는 의식이 주민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것이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선정' 주민 오봉록(47)씨는 "최근 3년 새 여섯 가구가 귀농해 우리 마을에 새 동지를 뒀다"며 달라지고 있는 마을 분위기를 전했다.

윤 회장은 "주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한다는 데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제일처럼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꿈은 꼭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413) 김종두



Advertisement for KCC (Korea Computer Center) and other services, including 'DS인실(주)', 'KCC인실(주)', and 'KCC인사(주)'.

광주경찰청 승진 독식?

개정 후 첫 인사 경찰서 확대 불만

광주지방경찰청이 개정 이후 처음 단행한 하위직 승진인사를 놓고 일선 경찰서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18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경찰은 지난 15일자로 경정급 이하 32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급기관인 광주경찰청으로 치우쳐 일선 현장에서 고군분투해 왔던 경찰들은 '경찰서 확대'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광주A경찰 모 직원은 "인원 수 기준 광주 경찰의 14%(400여명)에 불과한 지방청 위주로 승진인사를 낸 것은 일선 경찰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처사"라며 "승진하려면 지방청에 가라는 말이 괜한 소리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태안 주민 "특별법 촉구" 분신

기름피해 비관 자살 이어 세번째 희생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피해를 입은 충남 태안지역에서 피해를 비관한 어민 등 주민들의 자살기도가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오후 1시50분께 태안군 태안읍 등문리 수산경영인회관 옆 도로에서 이곳 주민 지창환(56)씨가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시도, 인근 병원에서 옮겨졌으나 중태다. 목격자들이 따르면 지씨는 이날 태안지역 어민들로 구성된 '태안 유류피해 투쟁위원회'가 주최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대회'에 참석,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의 발언 순서

에서 갑자기 무대 앞으로 뛰어나와 준비해온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지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태안의료원을 거쳐 천안 순천향대부속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분신 기도 전에 농약을 마신데다 화상 정도도 심해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태안을 조석시장 내에서

'명화수산'이라는 횃집을 운영하고 있다. 태안지역에서는 지난 10일 자신의 양식장에 큰 피해가 난 것을 비관하고(故) 이영권씨가 음독자살한 데 이어 15일에도 김모씨가 극약을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기름피해를 비관한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태안유류피해 투쟁위원회'는 어민 등 5천여 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서해 유류피해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들의 피해손실을 안전보상하고 사고를 일으킨 회사와 선사에 대해 중과실이 발견될 경우 무한책임을 지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합뉴스



18일 갯벌에서 어민들이 강추위 속에서 채취한 고막을 나르고 있다. 전남 남해안지역 어민들은 서해안 기름유출로 인해 설 이후 해산물 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남원주기자 mjna@kwangju.co.kr

"남해안 고막·새고막 기름 피해와 상관없어요"

판매량 반토막에 어민들 한숨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영향으로 제철을 맞은 전남 남해안 고막과 새고막이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청정지역인 여자와만 득량만에서 주로 생산되는 고막과

새고막 판매량이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200여에 달했으나, 태안 기름유출 사고 이후 하루 100여로 줄었다. 이처럼 판매량이 급감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이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남해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해산물들은 이번 기름유출사고와 무관하지만 막대한 불안감에

합싸인 소비자들이 제철을 맞은 남해안 고막과 새고막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해수청 관계자는 "고막과 새고막의 판매가격은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지만 소비량은 반으로 줄었다"며 "남해안 청정해안에서 생산되는 고막과 새고막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자와만 득량만에서 한 해 생산되는 고막과 새고막은 9천여에 이르며 이는 전국 생산량(1만2천여)의 80%를 차지한다. /여수=박영규기자 ykpark@kwangju.co.kr

오리·닭 수만마리 불법 도축

재래시장 판매업자 7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불법 도축장을 차려놓고 오리와 닭 수만 마리를 도축, 광주권 시장 도매상인에게 공급한 김모(51·담양군 대덕면)씨 등 7명을 축산물 가공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담양군 대덕면 M축산 내부에 무허가 도축장을 차려놓고 오리와 닭 5만4천여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다. 이들은 불법 도축한 오리와 닭을 중간상인을 통해 광주 말바우, 대인, 남부시장 등에 공급해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횡단보도 일가족 덮쳐

지난 17일 오후 7시45분께 순천시 황전면 괴곡리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이모(여·58)씨와 손자 2명이 무쏘 승용차(운전자 김모·47)에 치여 이씨가 숨지고 손자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느라 앞 차를 보지 못한 또 다른 김모씨(52·전북 전주시)의 아반떼 승용차가 김씨의 무쏘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술 병에 남긴 지문 때문에 델미

○순남을 가장 해 노래방에 들어간 40대 강도가 주문한 술병에 지문을 남기는 바람에 경찰에 델미. ○18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강모(42·광주시 북구)씨는 지난 3일 새벽 3시30분께 순천시 조곡동 G노래방에 들어가 시가 1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마신 뒤 주인 김모(여·52)씨와 노래방 도우미 2명을 흉기로 위협,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것. ○범인을 추적하던 경찰은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맥주병에서 용의자의 지문을 채취, 강씨의 신원을 알아낸 뒤 교체하고 있던 러시아 여성의 숙소 앞에서 잠복 중 검거에 성공했다고.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고도소출수 후 당장 먹고 싶을 줄이 없어 생활비와 유류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짓을 했다"고 진술.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Weather forecast for January 19th,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for various regions (Gwangju, Jeonnam, Jeonbuk, etc.) and a detailed weather map of Korea.

강추위 풀린다

주말·휴일 평년 기온 회복

휴일인 20일 광주·전남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지만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강추위는 없을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광주·전남지역은 주말인 19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후 늦게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며 "낮부터 평년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다"고 18일 밝혔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도, 낮 최고기온은 2~6도의 분포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휴일인 20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지만, 낮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필성기자 kps@

디스크 수술 받아도 군 면제 안된다

비만지수로 신체등급 판정

국방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술 여부와 무관하게 보충역(4급) 판정을 받았던 소위 '디스크'로 알려진 '수핵탈출증' 환자들 중에도 디스크 퇴행성 변화 증세를 보이거나 돌출형이면서 척추나 신경근 등이 압박되지 않는 경우 2~3급을 판정받아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된다. /연합뉴스

연세대 신임 총장

김한중 교수 선임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회(이사장 방우영)는 18일 오후 이사회 회의를 열어 김한중(59)의대 교수를 제16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김 교수는 이번이 두번째 총장직 도전으로 교수평의회가 주관하는 '총장후보 선출 선거'를 통해 1차 예비선거에서 교수와 교직원 등 전체 1천200여표 가운데 540표를 얻어 후보 6명 교수들 가운데 1위를 기록하는 등 출품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김 신임 총장은 오는 2월 취임한다. /연합뉴스